문구점 위생점검 23일 광주시 북구 효동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위생점검중인 북구청 공무원들이 간식을 사러 온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북구는 31일까지 문구점 등 483곳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미표시 제품에 대한 위생점검을 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인문·상경·이과·예체능 고교수학 4가지로 세분화

교과부, 광주서 공청회 … 흥미위주로 바꿔

문제풀이 위주로 구성된 수학 교과서에 공식의 탄생 배경과 실생활에서의 적용 사례 등을 넣어 학생들이 수학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이과로 구분된 고등학교 수학을 인문계와 상경계, 이과계, 예·체능계 수학 등 4가지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을 23일 광주시교육정보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수학시험에서 문제풀이나 계산위주보다는 풀이과정을 볼 수 있는 서술형 평가 비중을 높이고 고교 수학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시안을 보완한 것으로 고교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수학과목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문·이과로 구분된 수학과목을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교과과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교과부는 일례로 문과의 수학을 인문·상경계로 나누고 예체능계 수학을 새로 도입해 수학교과를 4가지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내용 요약과 공식, 문제 위주로 구성된 수학 교과서를 수식의 의미와 맥락, 사례를 적용한 이야기 형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진법은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떤 용도로 탄생했고 현재 어디서 활용되고 미래에는 어떻게 쓰일지 등을 제시하는 식이다.

교과부는 이밖에 수학포털 등 관련 학습 지원사이트를 구축하고, 학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관련 학습자료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에 대한 지역별 순회 토론회 등을 거쳐 5월께 확정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은 아직은 하나의 아이디어차원"이라며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게 될지, 시험에 반영할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수완지구 초·중학교 증설을"

광산구, 시교육청에 건의 … 학생 수 크게 늘어

광주 광산구는 최근 인구가 늘고 있는 수완지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신설해줄 것을 시교육청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산구에 따르면 수완지구의 입주율은 3월 현재 62%로 2013년 입주율이 100%가 되면 주민은 8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초·중등생 숫자에 맞춰 학교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이 광산구의 입장이다.

수완지구는 성덕, 수완, 장덕, 큰별 초등학교로 통학구역이 나뉘며 장덕초교 통학구역과 수완초교 통학구역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1개씩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장덕초 통학구역은 올해 271명이던 초등학교 입학생이 2013년에는 452명, 2014년 529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학년 기준 학급당 평균 인원도 현재 33.8명에서 2014년에는 66.1명으로 늘어나 전국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인원 27.7명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다.

광산구는 현재 수준의 학급 평균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8개 학급을 갖춘 초등학교가 2014년 3월 이전에 개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학교도 1학년 평균 인원이 33.5명인데 2013년이면 45.3명이 될 것으로 예상돼 2013년 3월까지 중학교 1곳이 추가로 개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봄철 A형간염 주의보

10~30대 많이 걸려

봄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며 A형간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깨끗해서 걸리는 질병'으로 잘 알려진 'A형간염'은 항체를 갖고 있지 않은 10대부터 30대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명 '유행성 간염'으로도 불리는 A형간염은 A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주로 급성간염의 형태로 나타난다. A형간염은 위생상태가 불결할 때 감염되기 쉬운데 조개 등의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거나 오염된 물을 끓이지 않고 그냥 먹었을 때 감염되기 쉽고, 인분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과일을 깨끗한 물에 제대로 씻지 않고 먹는 것도 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A형간염 항체가 없는 성인이 감염됐을 때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임상 양상은 더 심각해져 50대 이후 노년기에 감염되면 사망률이 1.8%로 급증한다. 이는 A형간염 전체 평균 사망률 0.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A형 간염 발생을 막으려면 날음식이나 씻지 않은 과일, 오래된 어패류 등의 섭취를 삼가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한다. 또 식사 전이나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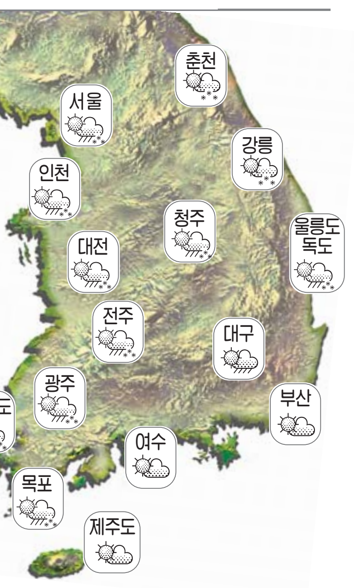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32분 / 해짐 18시 47분
달뜸 --시 --분 / 달짐 09시 17분

밤한때 비 또는 눈

맑은 후 흐려져 밤한때 비 또는 눈(강수확률 60%)이 내리겠다.

광 주	밤한때비또는눈	1/12℃
목 포	밤한때비또는눈	2/10℃
여 수	맑은뒤흐림	3/9℃
나 주	밤한때비또는눈	-2/13℃
완 도	맑은뒤흐림	1/12℃
구 례	밤한때비또는눈	-2/12℃
해 남	맑은뒤흐림	-2/12℃
장 흥	밤한때비또는눈	-2/12℃
순 천	맑은뒤흐림	1/11℃
영 광	밤한때비또는눈	0/10℃
진 도	맑은뒤흐림	0/12℃
전 주	밤한때비또는눈	0/12℃
군 산	밤한때비또는눈	0/10℃
남 원	밤한때비또는눈	-3/12℃
흑산도	밤한때비또는눈	3/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먼바다	남서~서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먼바다	남서~서	0.5~1.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서~북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남서~서	1.5~2.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보통	주의	낮음

	밀물	썰물
목포	05:26 17:23	10:26 22:32
여수	11:56 --:--	05:58 17:5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최저/최고	0/9	0/12	1/15	2/15	3/15	3/16

4~5월 맑고 건조·6월 비 많이 온다

광주지방기상청 예보

4월과 5월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6월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23일 '3개월(4~6월) 날씨 전망'을 통해 "4~5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며, 6월에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예보했다.

4월 기온은 평년(11~13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69~120㎜)과 비슷하겠다. 다만 4월 상순에는 찬 대륙 고기압이 한 차례 확장하며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뒤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5월에는 고온현상을 보일 때가 있어 기온이 평년(17~18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89~147㎜)보다 많겠다.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6월에는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21~23도, 150~243㎜)과 비슷하겠다고 기상청은 예상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